국보와 보물 불상, 불복장 유물 등 한자리에

2023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
'만월의 빛 정토의 빛'
3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관련 복장유물 28건 33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국보, 고려 1346년)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고려 1274년 중수)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성보 불상과 불복장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3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3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 '만월의 빛 정토의 빛'을 개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2022년 6월 23일 국보로 승격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국보, 고려 1346년)과 2010년 4월 23일 보물로 지정된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보물, 고려 1274년 중수) 그리고 그와 함께 불복장 유물 28건 33점을 함께 전시한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을 조성하는데 동참한 1078명의 이름이 기록된 1058cm 길이의 발원문을 시작으로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수리하면서 천정과 혜홍 두 스님이 발원한 10개의 대원을 적은 중수 발원문, 비단 오색번, 사경, 변상도 등이 전시된다.

복장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불상과 복장유물이 별도 공간에서 소개되었던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불상과 해당 불상에 봉안되어 있던 복장유물을 한자리에서 함께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1부 '만월의 빛'에서는 국보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을 주제로 장곡사 하대웅전에서 이운한 금동약사여래좌상을 비롯하여 1958년 처음 발견되어 2022년 국보로 승격된 1058cm 길이의 발원문(국보, 고려 1346년)과 비단 오색번(국보, 고려 1346년), 비단 주머니(국보, 고려 1346년)를 포함한 불복장 유물 13건 18점을 선보인다. 또한 불상 조성을 발원한 백운 화상의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본 영인본과 재현본을 함께 선보인다.

△2부 '정토의 빛'에서는 서울 개운사 미타전에서 이운한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해 2010년 보물로 지정된 불복장 유물 중 9~12세기에 간행된 〈화엄경〉과 3점의 중수 발원문을 포함한 15건 15점을 선보인다. 특히 국내 최고 목판 변상도인 〈대방광불화엄경〉의 권제28 십회향품제이십오지육의 변상도(보물, 고려 11~12세기 추정)를 함께 선보인다.

불복장이란 '불상 안에 봉안한 물건'을 말한다. 이는 고대 인도에서 불사리를 탑과 부처님 형상 안에 봉안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사리의 한계로 인해 법신사리를 모시는 형식으로 변화됐고,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그 형식이 좀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복장물의 종류도 달라지게 됐다. 한국불교의 불복장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복장물의 종류와 양식 등에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복장물을 통해 한국불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불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나 일본이 사람의 장기모양을 만들어 복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보병, 오륜존자, 입실지, 출실지, 사리함, 무고심주함 등 시공의 상징인 무량수와 무량광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복장물과 의식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나 중생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상징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미등 스님은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은 문화재적 관점에서 볼 때 성보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신앙의 대상이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당에 모신 불상을 법당 밖으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다. 그래서 그동안 복장물은 전시가 가능했으나 불상과 함께 전시되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이라며 "복장의식을 통해 비로소 예배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복장의식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의미의 전환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 것들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복장과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성보를 불복장 유물과 함께 공개하여 불성의 화현이자 예경의 대상인 부처님과 함께 그 안에 봉안되어 있던 발원문과 경문, 다라니 등을 통해 불복장의 가치와 의미, 한국 불복장의 특징 등을 새롭게 조명한다.

"향긋한 봄나물 활용 사찰음식 맛보세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2023년 봄 신 메뉴 출시

조계종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이 봄나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3월 5일부터 선보였다.

발우공양은 매년 사계절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매번 다른 구성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봄 메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 주는 향긋하고 다양한 봄나물을 활용하여 구성했다.

발우공양은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법식(法食) 총 5가지 코스메뉴를 선보이며, 코스별로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게 했다.


발우공양 신메뉴 모습.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에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땅의 영양분을 가득 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봄나물을 활용하여 '봄나물 설기'와 '봄나물 두부들깨찜'으로 겨울 동안 사라진 입맛을 돋우며, 봄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사찰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희식(喜食)과 법식(法食)에 더욱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봄의 시작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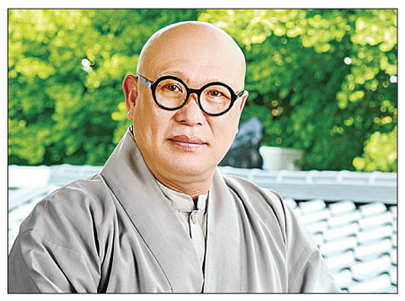
희식(喜食)은 땅의 기운과 봄의 향을 머금고 있는 더덕을 활용해 '연근죽'과 '봄 물김치' 그리고 '봄나물 튀김'과 '봄나물 완자전'으로 근기를 보충하게 한다. 법식(法食)은 어린 소나무 솔잎을 15년 동안 숙성한 '송차'로 입맛을 깨우며 '봄순데침' '봄나물 겨자채'로 쌉싸름하지만 계속해서 입맛을 돋군다.

발우공양의 모든 코스 마지막에는 봄에 즐겨먹는 '화전' 또는 '금귤정과' 그리고 '쑥차'를 입가심(디저트)으로 제공한다.

발우공양은 한국 사찰음식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이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를 획득한 바 있다. (02-733-2081) 신성민 기자

제15회 불교문예작품상 승한 스님 수상

'천치의 저녁' 외 4편 선정



계간 〈불교문예〉가 수여하는 제15회 불교문예작품상에 승한 스님(한국불교신문 주필 · 사진)의 시 '천치의 저녁' 외 4편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승한 스님의 시는 환경파괴로 인한 각종 재해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며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성찰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평했다.

불교문예작품상은 문인들이 근년에 발표한 시, 시조, 소설, 수필, 동시, 동화, 평론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불교문학계의 상이다.

작품상을 수상한 승한 스님은 19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및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시와 동시가 당선됐다. 저서로는 〈수렵도〉, 〈퍽 환한 하늘〉, 〈아무도 너의 깊이를 모른다〉, 〈그리운 173〉 등의 시집과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등의 산문집이 있다.

불교문예작가상에는 우정연 시인이 선정됐으며, 2023년 상반기 불교문예 신인상에는 신서영 시인과 김영성 작가가 선정됐다. 박재완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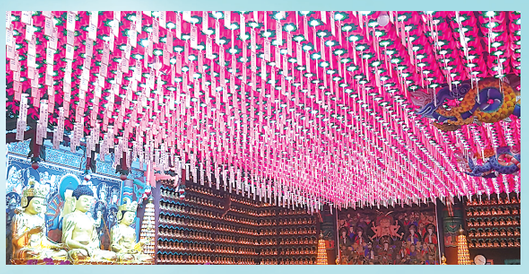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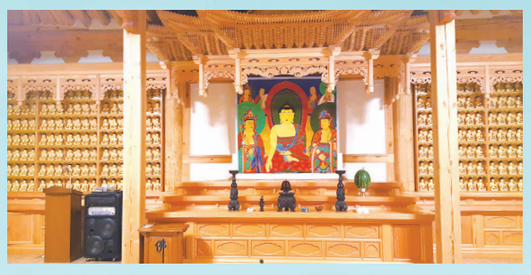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